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이 민 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祝 세례 (9월 24일, 교중 미사 중)

구/반	성명	세례명	구/반	성명	세례명
3/2	최승혁	안드레아	21/3	홍희영	스테파니아
6/5	권혜진	에스테르	22/4	채상기	스테파노
12/4	여성지	토마스		이희수	콘스탄티노
14/2	정주원	안젤라	5 지역	성준성	마티아
18/3	양미진	베로니카		신미진	레지나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성체분배자회	9월 24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위령봉사회	10월 1일(일), 11:40	강당
M.E.	10월 1일(일), 11:50	6교실
성모성심회	10월 7일(토), 17:30	강당

● 추석 연휴 미사 안내

28일 (목)	아침 06:30 ※ 10시/19시 미사는 없습니다.
29일 (금, 추석)	아침 06:30, 낮 12:00 (미사 후 음식 나눔)
30일 (토)	06:30, 19:00 ※ 16시 유초등부 미사는 없습니다.
10월 1일 (일)	06:30, 10:00(중고등부/유초등부), 10:30(교중), 12:00, 19:00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반드시 9월 27일(수)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 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9월 26일(화), 20:00	21구역	강당
10월 3일(화), 20:00	3구역	강당
10월 10일(화), 20:00	9구역	강당
10월 17일(화), 20:00	15구역	강당
10월 24일(화), 20:00	22구역	강당
10월 31일(화), 20:00	5지역	강당

● 본당 설립 60주년 기념 회고 사진전 사진 접수

- 접수일시 : 10월 1일까지
- 접수장소 : 성가정상 앞
- 회고 사진 전 : 10월 8일, 10시 15분, 교중미사 전 대성전에서 관람

● 알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본당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표는 9월 27일(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월 28일(목) 사무실 휴무입니다.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시 : 10월 6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10월 7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영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교육 / 강좌

- ‘2024년 부활’ 세례반 모집
 - 주일반 : 일요일 오전 9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다음 주일(10/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소	2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9월 13일 ~ 9월 19일)

교무금	6,238,000원
주일헌금	4,624,000원
헌미헌금 2차 헌금	1,912,710원
이은용 10만원 정영순 5만원 김경자 5만원	
이인화 5만원 문옥희 5만원	
감사헌금	11구역 국수 잔치 나눔 5만원
	17구역 국수 잔치 나눔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9/24	권태희	오성환	신종구	유숙중	임종윤	장익근 구민서
10/1	황원선	조홍환	신종구	김진수	최상림	안상록 김성해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9/24	최석준	옥윤필	박용환	오광운 장인홍
10/1	김인기	박승환	이계명	이운영 옥윤필

화답송 
주님은당신-을 부르는모든이에게 가까이-계시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26.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일부 부정적 영향만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증상들은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서둘러 정책을 개발하여 앞으로 몇 년 안에,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기체들의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매우 적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이 아직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지만, 그 비율은 아직 미미합니다. 에너지와 원료를 적게 사용하는 생산 수단과 운송 수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건물의 건축과 개조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바람직한 실천들이 보편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II. 물의 문제

27. 현재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지표들은 천연자원의 고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낭비와 버리는 습관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원에 이른 선진국들과 사회의 부유 계층의 현재 소비 수준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 착취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지만, 우리는 여전히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